

## 淳于意 診籍에 나타난 疾病의 考察

金富煥·朴炫局\*

### A study of the diseases which are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Kim Boo-Hwan, Park Hyun-Guk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seases which are in the Sun Woo-Yee's charts with the diseases which are in the medical books excavated in MA WANG TEI(馬王堆), 「YOUNG COO(靈樞)」 and 「SO MUN(素問)」, and to investigate their interactions.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

1. JOE(疽) which is made in stomach and bowels is not found at the medical books excavated in MA WANG TUI(馬王堆), 「YOUNG COO(靈樞)」 and 「SO MUN(素問)」. JOE(疽) which is made on the breast is similar to JOE(疽) which is made on the chest of 「YOUNG COO(靈樞)」.
2. It is said in Sun Woo-Yee(淳于意)'s charts that mental depression blocks up the circulation of KI(氣), and it is the same viewpoint of 「YOUNG COO(靈樞)」 and 「SO MUN(素問)」.
3. The POONG GYUL(風厥) and the YOUL GYUL(熱厥) that are found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is similar to those of 「SO MUN(素問)」, but different from those of 「YOUNG COO(靈樞)」.
4. It is regarded that YONG SAN(湧疝)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is similar to the COONG SAN(冲疝) in 「SO MUN(素問)」, KI SAN(氣疝)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is related to the TUI SAN(癩疝) of the medical books excavated in MA WANG TUI(馬王堆), 「YOUNG COO(靈樞)」 and 「SO MUN(素問)」, MO SAN(牡疝)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is considered PE SAN(肺疝) and PE POONG SAN(肺風疝) in 「SO MUN(素問)」, but more and deeper study is required. In the change of the terms ; from TUI SAN(癩疝) to TUI SAN(癢疝), from PYUN SAN(偏疝) to HO SAN(狐疝), it can be guessed that

---

\* 原典·醫史學教室

the terms changed, as new doctrines were introduced and reorganis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theory.

5. POONG BI(風痺)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is not found in 「YOUNG COO(靈樞)」, but it is similar to DAN FEVER(癰熱) in 「SO MUN(素問)」. It is regarded that PE SO DAN(肺消癰)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is the same as that of 「YOUNG COO(靈樞)」.

6. DONG PUNG(通風) in Sun Woo-Yee(淳于意)'s charts is not found in 「YOUNG COO(靈樞)」 and 「SO MUN(素問)」, but it seems like DONG SOEL(洞泄) in 「YOUNG COO(靈樞)」. It is regarded that the DONG PUNG(通風)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was at first changed into DONG SOEL(洞泄), and later differentiated into DONG SOEL(洞泄) and SON SOEL(糞泄).

7.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the treatment of the decayed tooth had the classification of the right and left, seeing cauterization with moxa on SU YANG MYOUNG MAEK(手陽明脈), it is considered that the tooth was decayed in the lower right region. A tooth was related to QI MAEK(齒脈) and BI YANG MYOUNG MAEK(臂陽明脈) in the early stage, but gradually was related to not only SU YANG MYOUNG MAEK(手陽明脈) but also JOK YANG MYOUNG MAEK(足陽明脈), JOK SO YIN MAEK(足少陰脈), JOK TAE YIN MAEK(足太陰脈), and in regards to the tooth and KYUNG MAEK(經脈), 「YOUNG COO(靈樞)」 emphasised the course of the KYUNG MAEK(經脈), 「SO MUN(素問)」 emphasised the attachment of the five elements.

8. In regards to BI(痺), the importance of the five elements theory given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is similar to that of 「SO MUN(素問)」, and 「YOUNG COO(靈樞)」 and the medical books excavated in MA WANG TUI(馬王堆) give the same importance to the KYUNG MAEK(經脈) theory.

9. The explanation of the irregular menstruation in the Sun Woo-Yee(淳于意)'s charts was fundamentally similar to that of 「SO MUN(素問)」, but it shows the another theory that can not found in 「SO MUN(素問)」.

## I. 序 論

淳于意는 기원전 약 205년(혹215년)에 태어나 죽은 해는 확실하지 않으며, 姓이 淳于이며 이름은 意이다. 그는 齊나라의 太倉長을 지냈기 때문에 “太倉公” 혹은 “倉公”이라고도 불린다. 淳于意의 행적과 그가 환자를 진료한 기록이 司馬遷이 저술한 「史記」의 扁鵲倉公列傳에 전하고 있다. 司馬遷은 기원전

약 135년 (혹 145년)에 태어나 기원전 104년에 「史記」의 저술을 시작하였는데, 淳于意 출생과는 100년이 되지 않은 時差이기에, 「史記」에 기재되어 있는 淳于意에 관한 史實은 상당히 진실 되다고 볼 수 있다. 扁鵲倉公列傳의 倉公傳은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에는 倉公의 간단한 略歷이 소개되어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기록한 診籍이 나오며,

세 번째 부분은 漢文帝와 倉公과의 문답이 있으며, 네 번째는 司馬遷의 글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부분의 診籍에서는 각종 疾病에 관한 病因, 病理, 脈診, 약물과 처방, 침구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그가 내과, 부인과, 소아과, 오관과에 걸쳐 다방면에 뛰어난 의술을 발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환자의 사회적 지위도, 왕에서부터 노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범위한 계층의 환자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診籍을 통하여 그 당시의 의학 수준을 추측할 수 있다.

중국 의학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만한 『黃帝內經』이전의 의학 문헌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단지 史書에 『史記 扁鵲倉公列傳』이 있어 史家에서 본 醫學을 볼 수 있으며, 최근에 發掘된 長沙 馬王堆의 醫學文獻이 또한 戰國에서 秦漢에 이르는 時代의 의학 수준 및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竹簡이나 帛書에 기록된 馬王堆 醫書는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현재 전하는 『黃帝內經』은 오랜 시간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의학 이론도 완숙 단계이다. 이에 著者は 醫學發展上 馬王堆 醫書의 形成과 『黃帝內經』 形成의 중간 단계로 보이는 淳于意의 의학 사상을 『史記 倉公傳』에 나타난 醫學文獻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淳于意 醫學思想 研究』(박사 과정 제1기 중간 발표)라는 글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는 疾病에 관한 內容을 馬王堆 醫書 및 『黃帝內經』과 比較 檢討하여 그 相關關係를 살펴보고자 한다. 『黃帝內經』은 『靈樞』와 『素問』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內經靈素考』에서 『靈樞』와 『素問』을 합한 것이 『黃帝內經』이 될 수 없

다고 하는데, 著者도 그기에 따라 『靈樞』와 『素問』을 각각 獨立된 著作으로 보고, 診籍과의 關係를 檢討하였다. 물론 『靈樞』, 『素問』以外에 『難經』, 『神農本草經』, 『傷寒雜病論』등도 앞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 II. 本 論

### 1. 淳于意 診籍의 醫史學的 價值

淳于意는 기원전 약205(혹215)년에 태어나 죽은 해는 확실하지 않다(혹 약 기원전 약 205년에서 기원전 150년까지 활동하였다고 보기도 한다<sup>1)</sup>). 어려서부터 의학을 좋아하여 36세 되던 해인 기원전 180년(高后 8年)에 나이 70여세인 陽慶에게서 三年을 배웠다. 기원전 167년(문제 4년) 49세에 죄를 지어 長安으로 押送되었으나, 면죄 받고 집에 있다가 다시 皇帝에게 불려 가 그간의 의료 활동과 전수 과정에 대하여 아린다. 이러한 皇帝와 淳于意와의 問答이 『史記 扁鵲倉公列傳』에 잘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보면 淳于意는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으며, 특히 涪川 唐里의 公孫光과 臨甯의 陽慶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臨甯인 宋邑에게 五診을 一年정도 가르쳤고, 濟北王 太醫인 高期와 王禹에게 鑱石의 사용과 砭灸處등에 관하여 一年정도 가르쳤고, 川王시절 太倉長인 馮信에게 論藥法, 定五味, 和齊湯法등을 가르쳤고, 高永侯의 家丞인 杜信에게 上下經脈, 五診을 二年정도 가르쳤고, 臨甯 召里의 唐安에게 上下經脈 五診 奇咳등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즉 淳于意는 戰國時代와 前漢時代에 걸쳐 형성되었던 醫學을 광범위하

1) 中國醫學史 甄志亞主篇, 一中社, P.116

게 흡수하였으며, 또한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인물에게 그 의학을 전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淳于意가 言及하고 있는 醫學文獻을 보면 ‘黃帝扁鵲之脈書’, ‘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 ‘接陰陽禁書’, ‘外變’, ‘藥論’, ‘石神’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脈書上下經’, ‘五色診’, ‘奇咳術’, ‘揆度’, ‘陰陽’은, 『素問』에서 ‘上經’, ‘下經’, ‘五色’, ‘揆度’, ‘陰陽’, ‘奇恒’이라고 引用한 醫學文獻과 일치한다. 그리고 ‘黃帝扁鵲之脈書’는 『漢書藝文志 方技略』에 나오는 『黃帝內經』, 『黃帝外經』, 『扁鵲內經』, 『扁鵲外經』의 祖述藍本임을 『內經靈素考』에서 밝히고 있다.

淳于意는 齊나라 臨菑人인데, 黃帝를 崇慕하는 思想이 齊나라에서 출발하였으며, 扁鵲도 渤海鄭人이라 하여 燕齊地域 사람이며, 鄒衍도 齊나라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淳于意 스승인 公孫光과 陽慶도 臨菑를 중심으로 한 齊나라 人이며, 淳于意가 배출한 弟子도 거의가 齊나라 人이다. 이러한 점은 黃帝를 崇慕하는 思想과, 五行理論이 直接的으로 齊나라 醫學에 影響을 미쳤을 것을 의미한다.

이로 볼 때 淳于意의 診籍에 나타난 醫學理論은 『黃帝內經』形成以前的 醫學과 『黃帝內經』形成에 미친 影響을 살피는데 충분한 價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著者는 淳于意 診籍에 나타난 疾病을 中心으로 그와 關聯된 醫學的 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診籍에 나타난 疾病

淳于意 診籍에서는 25항목에 걸쳐 患者를 診療한 記錄을 남기고 있으나, 重複되는 疾患이나 같은 類의 疾患을 정리하여 보면, 주요한 12가지의 疾病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疽, 氣隔, 厥, 疝, 癰, 癩, 遍風, 齲齒, 痺, 月事

不下, 苦奮風, 中熱로 分類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병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馬王堆 出土文獻과 『素問』, 『靈樞』를 비교하여 그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以下에서는 淳于意 診籍은 診籍으로, 馬王堆 出土醫書는 馬王堆로 略稱하기로 한다.

#### 1) 疽

##### (1) 診籍

齊 侍御史 成의 病을 診療하며, “此病疽也 內發於腸胃之間 後五日當癰腫 後八日嘔膿 成之病得之飲酒且內 成即如期死”라 하였고, 齊王의 侍醫인 遂의 病을 診療하며 “……邪氣流行 爲重 困於俞 忿發爲疽……疽發乳上入缺盆死”라 하였다.

##### (2) 馬王堆

馬王堆 五十二病方의 (疽)病에서 疽病의 分類 辨證 造方 用藥等 方面에 대하여 特色 있고 높은 수준의 內容이 있다. 모두 18조가 있으나 비교적 9조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㉑ 疽病 治白蔽黃者 芍藥 桂 薑 椒 茱萸 凡七物 骨疽倍白 肉疽倍黃者 腎疽倍芍藥 其餘各一 并以三指大撮一入杯酒中 日五六飲之 須已 \*

㉒ 三内(左 右乃)煮蓬蘽取汁四斗 以酒疽 瘰

㉓ 疽始起 取商牟漬醢中 以熨其腫處

㉔ 疽 以白蔽黃者 芍藥 甘草 四物煮 \* 薑 蜀椒 茱萸 四物而當一物 其一骨 \* \* \* 三 \* 以酒一杯 \* \* \* 筋疽灸翟翟灸 \* \* 之其 \* \* \* \* 日四飲 一欲潰止

㉕ 疽未 \* \* \* \* 烏喙十四顆 以美醢半升 \* \* \* \* 택(左米右韋)泔二參 入藥中 \* \* \* 令如 \* \* \* \* 灸手以磨 \* \* \* 傅 \* \* \* \* 之 以餘藥封而裹 \* \* \* \* 不痛已 \* \*

㉖ 疽者 白蔽三 百合一 并治 \* \* \* \* \*

\* 飲之

⑤ 噎爛疽 爛疽者 \* \* 起而 \* \* \* \* \*  
\* \* \* 治 以彘膏未煎 者灸消以和 \* 傅之 日  
一傅藥 傅藥前洒以溫水 服藥三十日 \* 已 嘗  
試

⑥ 諸疽物初發者 取大菽一斗 熬熟 即急抒  
置甑 \* \* \* \* \* 置其 \* 醇酒一斗淳之  
\* \* \* 即取其汁盡飲之 一飲病未已 \* \* \* \* \*  
\* \* \* \* \* 飲之可 不過數飲 病已 毋禁 嘗  
試

⑦ 血疽始發 憊憊以熱 痛毋適 \* \* \* \* \*  
疽 \* \* \* \* \* 戴穆黃芩 白朮皆居三日  
\* \* \* \* \* 之  
令汗出到足 已

⑧ 氣疽始發 員員以 \* 如 \* 狀 撫摩 \* 而  
\* \* \* \* \* 二顆 \* \* \* \* \*

馬王堆 五十二病方の 癰에 관하여 모두 8  
조가 記述되어 있는데, 7조는 治癰方이며, 하  
나의 美容方이 있다. 治癰方에는, 熨, 敷, 灸  
法의에 祝由術을 사용하고 있다.

① 癰取 \* \* 羽 \* 二 \* 二 禹步三 \* \* 一  
杯

② 癰自發者 取桐本一節 所以燻(左?右舉)  
泔煮

③ 癰腫者 取烏喙 藜蘆 治之 \* \* \* \* \*  
\* \* \* \* \* 之 以熨腫所 有可 \* \* 手 令癰腫者  
皆已

④ 癰首 取苾半斗 細舂(左尊右)而以善  
敲六斗 \* \* \* \* \* 如此 \* \* 醫以此教惠

⑤ 身有癰者曰 臯 敢告大山陵 某不幸病癰  
我值百疾之 \* 我以明月照若 寒 \* \* \* \* \* 以柞식  
(左木右食)挺若以虎爪 扶取若刀 而割若尾  
而削若肉 \* 若不去 苦唾 \* \* \* \* \* 朝日未  
\* \* 向唾之

⑥ 白芷 白衡 茵桂 枯薑 辛夷 凡五物等  
已治五物 \* \* \* 取牛脂 \* \* \* 細布 \* \* 并以  
金銚煖桑炭 才沸發 又復煖沸 如此 \* \* \* 布

抒取汁 即取水銀磨掌中 以和藥 傅 且以濡漿  
細 \* \* \* 之 \* \* \* \* \* 傅藥母食 \* 彘肉魚及女子  
已 面類 \* \* 者

⑦ 身有體癰腫者方 取牡 \* 一 就 \* \* \* \* \*  
\* \* \* \* 飲之 候其 不盡一斗 抒臧之 稍取以  
塗身體腫者而灸之 \* \* \* \* \* 癰腫盡去 已  
嘗試 令

⑧ 頤癰者 治半夏一 牛煎脂二 醢六 并以鼎  
\* \* \* 如 \* 米(左米右禾) 以傅 勿盡傅 圍一寸  
乾復傅之 而以湯洒去藥 已矣

(3) 「靈樞」

「靈樞 癰疽篇」에서 癰疽가 發生하는 病  
變과, 여러 종류의 癰疽에 關한 說明과, 癰과  
疽의 鑑別에 關하여 주로 記述되어 있으며,  
以外에도 몇 곳에서 나타나나, 馬王堆와 診  
籍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病因과 病理

① 「靈樞 玉版篇」 “病之生時 有喜怒不測  
飲食不節 陰氣不足 陽氣有餘 營氣不行 乃發  
爲癰疽”

② 「靈樞 癰疽篇」 “寒邪客于經絡之中 則  
血泣 血泣則不通 不通則衛氣歸之 不得復反  
故癰腫”

③ 「靈樞 脈度篇」 “六腑不和 則留爲癰”  
癰疽의 症候 및 治法

「靈樞」에서 볼 수 있는 癰疽로는 猛疽, 疔疽,  
腦爛, 疔癰, 米疽, 井疽, 甘疽, 敗疔, 股脛疽,  
銳疽, 赤施, 疔疽, 兔留, 走緩, 四淫, 厲癰, 脫癰,  
肉疽, 骨疽가 있다. 이 중에서 關聯性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靈樞 癰疽篇」 “癰發於喉中 名曰 猛疽  
猛疽不治 化爲膿 膿不瀉 塞咽 半日死 其化  
爲膿者 瀉則合豕膏 冷食 三日而已”

② 「靈樞 癰疽篇」 “發于胸 名曰 井疽 其狀  
如大豆 三四日起 不早治 下入腹 不治 七日  
死矣”

③ 「靈樞 刺節眞邪篇」 “有所結 中于肉 宗氣歸之 邪留而不去 有熱則化而爲膿 無熱則爲肉疽”

④ 「靈樞 刺節眞邪篇」 “有所結 深中骨 氣因于骨 骨與氣并 日以益大 則爲骨疽”

#### (4) 「素問」

馬王堆와 診籍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찾아보면, 「素問 生氣通天論篇」 “營氣不從 逆于肉理 乃生癰腫”이라 하여 癰腫의 病因, 病理를 말하고 있으며, 頸癰, 腋癰, 暴癰等도 거론하고 있다.

이상에서 診籍과 馬王堆 五十二病方의 治癰方 및 治疽方과, 「靈樞」, 「素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 ① 癰疽의 發生部位

診籍에서 記述한 腸胃之間에 發生한 疽에 관한 言及은 馬王堆, 「靈樞」, 「素問」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診籍에서 記述한 乳上에 發生한 疽는 「靈樞 癰疽篇」에 나오는 胸에 發生한 井疽와 유사하다. 그러나 發生 부위는 같으나, 診籍에서는 癰疽가 乳上에서 缺盆으로 들어가 죽는다고 하였고, 井疽는 胸에서 내려가 腹으로 들어가 죽는다고 하였다.

#### ② 癰疽의 病因

診籍에서는 “飲酒且內”, “忿發爲疽”를 癰疽의 病因으로 들고 있는데, 馬王堆에서는 癰疽의 病因을 學論한 곳을 찾아 볼 수 없고, 「靈樞」에서는 “喜怒不測 飲食不節”, “寒邪客于經絡”, “六腑不和”등을 들고 있고, 「素問」에서는 “營氣不從”등을 들고 있다. 이로 볼 때 診籍에서 癰疽의 病因으로 들고 있는 것이 「靈樞」에서 들고 있는 病因과 相通함을 볼 수 있다.

#### ③ 馬王堆 治癰疽方과 「靈樞」

馬王堆 治癰疽方에서 나타나는 癰疽를 보면 骨疽, 肉疽, 腎疽, 筋疽, 疽, 爛疽, 血疽, 氣疽, 頤癰이 있으며, 그 治方이 있다. 그런데 骨疽와 肉疽는 「靈樞 刺節眞邪篇」에서 그 명칭을 찾아 볼 수 있고<sup>2)</sup>, 疽는 「靈樞 經脈篇」의 猛疽와 그 發生部位가 같다.

馬王堆의 骨疽와 肉疽가 「靈樞 刺節眞邪篇」의 骨疽와 肉疽의 名稱만 같고, 馬王堆에서는 治方만 나오며, 「靈樞」에서는 그 病理만 나오나, 骨과 肉에 發生한 癰疽라는 점을 볼 때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 2) 氣隔

##### (1) 診籍

齊나라 王의 여러 孫子중 한 아이가 병이 들어 淳于意가 診療한 뒤 ‘氣隔病’이라 하였고, 그 病因으로 마음이 憂鬱한데 자주 억지로 食物을 먹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2) 馬王堆

馬王堆에서 氣에 관하여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나, 일부는 毀損되어 그 뜻을 알 수 없고, 일부는 ‘氣’의 意味가 診籍에서 意味하는 바와 다르기에 診籍과 關聯性이 있는 것만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① 「脈法」 “氣也者 利下而害上 從暖而去 清焉”

② 「脈法」 “故氣上而不下 則視有過之脈 當還而灸之 病甚 而上於還二寸 益爲一灸”

③ 「脈法」 “氣一上 一下 當却與 之脈而疔之”

④ 「五十二病方」 “益力 清除心胸中惡氣 : 取槐莢中實”……”

⑤ 「五十二病方」 “……有氣則生 無氣則死…….”

2) 「精校黃帝內經靈樞」에서는 肉疽와 骨疽를 肉瘤와 骨瘤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3) 「史記 倉公傳」 “病得之 少憂 數性食飲”

4) 槐莢中實 : 槐實을 말함. (馬王堆古醫書考釋 P.721)

(3) 「靈樞」

① 「本神篇」 “愁憂者 氣閉塞而不行”

② 「四時氣篇」 “飲食不下 膈塞不通 邪在胃皖 在上皖 則刺<sup>5)</sup>抑而下之 在下皖 則散而去之”

(4) 「素問」

① 「陰陽別論篇」 “三陽結謂之隔 三陰結謂之水”

② 「通評虛實論篇」 “隔塞<sup>6)</sup>閉絕 上下不通 則暴憂之病也”

이상에서 診籍의 氣隔및 그와 關聯된 馬王堆와 「靈樞」, 「素問」의 氣의 閉塞을 정리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알 수 있다.

① 診籍에서는 마음이 憂鬱한데 억지로 飲食物을 먹으면 氣隔病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靈樞 本神篇」에서 “愁憂者 氣閉塞而不行”이라 한 것과, 「素問 通評虛實論篇」에서 “隔塞閉絕 上下不通 則暴憂之病也”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憂가 氣를 閉塞시켜 上下不通하게 하는 주된 病因이라고 보는 것에는 診籍, 「靈樞」, 「素問」이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② 馬王堆에서는 憂가 氣를 閉塞한다는 內容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단지 「脈法」에서 “氣也者 利下而害上”, “氣上而不下 則視有過之脈……”이라 하여, 氣가 上逆하면 해롭다는 內容을 말하고 있으며, 「五十二病方」에서 “有氣則生 無氣則死”라 하여 氣가 生命現象의 必需的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

3) 厥

(1) 診籍

診籍에서 厥과 關聯이 있는 內容을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① “濟北王病 召臣意診其脈曰 風厥 胸滿……得之汗出伏地”

② “故濟北王阿母 自言足熱而……病得之 飲酒大醉……熱厥也”

③ “川王病 召臣意 診脈曰 厥上……頭痛 身熱 使人煩懣……病得之沐髮未乾而臥”

(2) 馬王堆

馬王堆出土醫書에서 나타난 厥과 關聯된 內容을 살펴보면 「陰陽十一脈灸經」에서 주로 나타나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鉅陽脈……腰似折 脾不可以運 腦如結 臑如裂 此爲 厥”

② “少陽脈……不可以反側 甚則無膏 足外反 此爲陽厥”

③ “陽明脈……欲登高而歌 棄衣而走 此爲 肝厥”

④ “少陰脈……不欲食 面黧若地色 欬則有血 此爲骨厥”

⑤ “臂鉅陰脈……甚則 交兩手而戰 此爲臂 厥”

⑥ “臂少陰脈……心痛噎渴欲飲 此爲臂厥”

(3) 「靈樞」

a 「終始篇」 “刺熱厥者留針反爲寒 刺寒厥者留針反爲熱 刺熱厥者 二陰一陽 刺寒厥者 二陽一陰”

b 「寒熱病篇」 “熱厥取足太陰 少陽 皆留之 寒厥取足陽明 少陰於足 皆留之”

c 「五變篇」 “人之善病風厥 澀汗者 何以候之 少俞答曰 肉不堅腠理疏 則善病風”

d 「經脈篇」 “肺手太陰之脈……是動則……甚則交兩手而瞀 此爲臂厥……是主肺所生病者……臑臂內前廉痛厥”

e 「經脈篇」 “胃足陽明之脈……甚則欲上高而歌 棄衣而走 責響腹脹 是爲肝厥”

f 「經脈篇」 “脾足太陰之脈……所生病者……股膝內腫厥 足大趾不用”

5) 「甲乙」이나 「普濟方」에는 ‘刺’字이 없다.(精校黃帝內經靈樞)

6) ‘塞’이 別本에는 ‘則’으로 되어 있다.(精校黃帝內經素問)

⑧ 「經脈篇」 “心手少陰之脈……是動則病 噎乾 心痛 渴而欲飲 是爲臂厥……所生病…… 臑臂內後廉痛厥”

⑨ 「經脈篇」 “膀胱足太陽之脈……是動則病……腰似折 髀不可以曲 脛如結 如裂 是爲蹠厥”

⑩ 「經脈篇」 “腎足少陰之脈……是動則病……饑不欲食 面如漆柴 咳唾則有血……是爲骨厥……所生病……脊股內後廉痛 痿厥……”

⑪ 「經脈篇」 “膽足少陽之脈……是動則病……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厥”

⑫ 「寒熱病篇」 “骨寒熱者……齒已槁 死不治 骨厥亦然”

⑬ 「寒熱病篇」 “厥痺者 厥氣上及腹 取陰陽之絡”

(4) 「素問」

⑭ 「五臟生成篇」 “血凝於膚者爲痺 凝於脈者爲泣 凝於足者爲厥”

⑮ 「通評虛實論篇」 “凡治消瘴擊仆偏枯痿厥 氣滿 發逆 肥貴人 則高粱之疾也……暴厥而聾 偏閉塞不通 內氣暴薄也”

⑯ 「評熱病論篇」 “汗出而身熱者風也 汗出而煩滿不解者厥也 病名曰風厥”

⑰ 「素問 厥論篇」 “帝曰 熱厥之爲熱也 必起於足下”

⑱ 「厥論篇」 “陽氣衰於下 則爲寒厥 陰氣衰於下 則爲熱厥”

⑲ 「厥論篇」 “陽氣起於足五指之表 陰脈者集於足下 而聚於足心 故陽氣勝則足下熱也”

⑳ 「厥論篇」 “酒入於胃 則絡脈滿而經脈虛……不營其四肢……必數醉若飽……以入房……陽氣獨勝 故手足爲之熱也”

㉑ 「厥論篇」 “巨陽之厥 則腫首頭重 足不

能行 發爲胸仆陽明之厥 則癩疾欲走呼 腹滿不得臥 面赤而熱 妄見而妄言 少陽之厥 則暴聾頰腫而熱 脇痛節不可以運 太陰之厥 則腹滿臑脹 後不利 不飲食 食則嘔 不得臥 少陰之厥 則口乾溺赤 腹滿心痛 厥陰之厥 則少腹腫痛 腹脹 溼洩 不利 好臥 屈膝 陰縮腫 內熱”

㉒ 「脈解篇」 “少陰不至者厥也”

㉓ 「調經論篇」 “志有餘則腹脹泄泄 不足則厥”

㉔ 「調經論篇」 “厥氣上逆 寒氣積於胸中而不寫 不寫則溫氣去 寒獨留 則血凝泣 凝則脈不通 其脈盛大以瀆故中寒”

㉕ 「至真要大論篇」 “少陰在泉……主勝則厥氣上行 心痛發熱 中衆痺皆作 發於肢脇 魄汗不藏 四逆而起”

㉖ 「疏五過論篇」 “暴怒傷陰 暴喜傷陽 厥氣上行 滿脈去形”

「靈樞」, 「素問」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厥의 종류로는 暴厥, 尸厥, 大厥, 煎厥, 薄厥, 暍厥, 四厥, 少氣厥, 寒厥, 熱厥, 風厥을 들고 있다. 「靈樞」, 「素問」의 厥의 명칭에 診籍과 일치하는 것으로 風厥, 熱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靈樞」와 「素問」에서 言及하고 있는 厥은 그 内容上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疾病發展 過程에 나타나는 手足逆冷이나 手足熱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厥逆이라 하며, 둘째로 情志所傷이나 飲食勞倦으로 氣血逆亂하여 돌연 昏仆하나, 잠시 후 蘇生하는 症候로 보통 厥症이라 하며, 셋째로 生活失攝하여 陰陽이 偏盛偏衰하여 氣血痰濁에 의하여 돌연 昏仆하는 것으로 半身不遂의 症狀을 나타내는 것으로 後世에 中風이라 하는 것이다.<sup>8)</sup>

이에 診籍에 나타난 厥과 馬王堆, 「靈樞」, 「素問」의 厥을 比較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7) 「黃帝內經類析」, P.369

8) 「黃帝內經類析」, P.368



① 診籍에서는 厥의 種類로 風厥, 熱厥, 厥上이 나타난다. 馬王堆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靈樞」와 「素問」에서 다같이 風厥과 熱厥을 言及하고 있다.

濟北王의 風厥은 그 症狀은 胸滿하며 病因은 汗出伏地라고 하였는데, 馬王堆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靈樞 五變篇」에서 말하는 風厥은 내용상 診籍과 差異가 나며, 「素問 評熱病論」에서는 “汗出而煩滿不解者 厥也 病名曰風厥”이라 하여, 診籍과 症狀과 病因을 같이 보고 있다.

② 濟北王의 乳母였던 사람이 足熱而 하는 症狀을 가진 熱厥을 飲酒大醉하여 얻게 되었는데, 淳于意가 足心 三所에 刺針하여 治療하였다. 그런데 馬王堆에서는 熱厥이 나타나지 않으며, 「靈樞」에서는 熱厥이 나타나나, 「終始篇」에서는 “刺熱厥者留針反爲寒”, “刺熱厥者 二陰一陽”이라 하고, 「寒熱病篇」에서는 “熱厥取足太陰 少陽 皆留之”라 하여 說明하는 바가 다르기에 診籍의 熱厥과 「靈樞」의 熱厥이 다르다고 斷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는 않다. 그러나 「素問」을 보면 「厥論篇」에서 病理로 “熱厥之爲熱也必起於足下”, “陰氣衰於下 則爲熱厥”, “陽氣起於足五指之表 陰脈者 集於足下 而聚於足心 故陽氣勝則足下熱也”, “酒入於胃 則絡脈滿而經脈虛……不營其四肢……必數醉若飽 以入房……陽氣獨勝 故手足爲之熱也”라 하였고, 그 病因으로 “酒入於胃”라 하였고, 그 症狀으로 “手足爲之熱”이라 하여, 診籍에서 말하는 病因, 症狀과 디름이 없다.

③ 畱川王이 病이 들었는데 淳于意가 厥上이라 하였으며, 그 症狀은 頭痛, 身熱, 煩懣하며, 病因은 沐髮未乾而臥하여 얻은 것이라 하였다. 馬王堆에서는 厥上을 찾아볼 수 없고, 「靈樞」나 「素問」에서도 厥上은 없다. 단지 「素問」에서 厥氣上行, 厥氣上逆, 厥氣上

衝이 있으나, 그 內容은 診籍에서 말하는 厥上과는 다르다.

④ 이외에 특징적으로 馬王堆에서는 厥이 「陰陽十一脈灸經」에서만 주로 나타나며 그 종류는 蹠厥, 陽厥, 肝厥, 骨厥, 臂厥, 이 있다. 「靈樞 經脈篇」에서는 臂厥, 臂內前廉痛厥, 厥, 股膝內腫厥, 臂內後廉痛厥, 蹠厥, 骨厥, 痿厥, 陽厥을 言及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陰陽十一脈灸經」이 「靈樞」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素問 厥論篇」에서는 三陰三陽으로 分類한 巨陽之厥, 陽明之厥, 少陽之厥, 太陰之厥, 少陰之厥, 厥陰之厥을 言及하고 있다.

즉 診籍을 중심으로 한 厥症을 조사한바, 診籍과 「素問」이 同一한 學說을 말하고 있으며, 馬王堆의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가 同一한 學說을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疝

##### (1) 診籍

診籍에서 나타나는 疝에는 湧疝, 氣疝, 牡疝을 볼 수 있으며, 疝症의 原因으로 모두 房事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齊郎中令循病……湧疝也 令人不得前後溲……病得之內

② 齊北宮司空命婦出於病……病氣疝 客於膀胱 難於前後溲……使人腹腫 出於病得之 欲溺不得因以接內……腹之所以腫者 言蹠陰之絡結小腹也……臣意即灸其足蹠陰之脈 左右各一所

③ 安陵阪里公乘項處病 臣意診脈曰牡疝 牡疝在膈下上連肺 病得之內

##### (2) 馬王堆

馬王堆의 「陰陽十一脈灸經」의 蹠陰脈條를 보면 “蹠陰脈……是動則病 丈夫癰疝 婦人則少腹腫 腰痛 不可以仰 甚則噎乾 面疵是蹠陰脈主治 其所產病 熱中 偏疝……”이라 하여, 丈夫의 癰疝과 婦人의 少腹腫은 蹠陰

脈이 主治한다고 하였고, 疝의 종류로 癰疝과 偏疝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腫囊“陰囊腫大”과의 治法이 「五十二病方」에서 나타난다.

(3) 「靈樞」

「靈樞」에서 疝症에 관하여 살펴보면 癰疝, 狐疝, 卒疝, 心疝을 言及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經脈篇」 “肝足厥陰之脈……是動則病腰痛不可以伸仰 丈夫癰疝 婦人少腹腫”

② 「邪氣臟腑病形篇」 “肝脈急甚者爲惡言……滑甚爲癰疝”

③ 「經筋篇」 “足陽明之筋……其病……疝腹筋急……”

④ 「經脈篇」 “肝足厥陰之脈……所生病者……狐疝……”

⑤ 「本藏篇」 “腎高……腎下則腰尻痛 不可以伸仰 爲狐疝……”

⑥ 「經脈篇」 “足厥陰之別 名曰蠱溝……氣逆則辜腫卒疝……”

⑦ 「邪氣臟腑病形篇」 “心脈……微滑爲心疝 引臍 小腹鳴……”

⑧ 「熱病篇」 “心疝暴痛 取足太陰厥陰 盡刺去其血絡”

(4) 「素問」

「素問 骨空論篇」에서 “任脈爲病 男子内結七疝 女子帶下瘕聚”라 하였는데, 실제로 「素問」에서는 癰疝, 狐疝風, 五臟風疝, 冲疝, 厥疝, 卒疝, 疝疝, 心疝, 肺疝의 아홉 가지 疝症을 言及하고 있으며, 또한 疝症을 定義하여 「素問 長刺節論」에서 “病在少腹 腹痛不得大小便 病名曰疝 得之寒”이라 하였고, 「大奇論篇」에서 “腎脈大急沈 肝脈大急沈 皆爲疝……三陰急爲疝……”라 하였다. 「素問」에 나타난 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疝

a. 「陰陽別論篇」 “三陽爲病 發寒熱……傳爲癰疝”

b. 「脈解篇」 “厥陰所謂癰疝 婦人少腹腫者 厥陰者 辰也 三月陽中之陰 邪在中 故曰 癰疝 少腹腫也”

c. 「至眞要大論篇」 “陽明司天 燥淫所勝 則木乃晚榮……民病……丈夫癰疝 婦人少腹腫……”

d. 「至眞要大論篇」 “陽明之勝 清發於中……内爲噎塞 外發癰疝……”

② 狐疝風

「四時刺逆從論篇」 “厥陰……滑則病狐疝風”

③ 五臟風疝

「四時刺逆從論篇」 “……少陰……滑則病肺風疝……太陰……滑則病脾風疝……陽明……滑則病心風疝……太陽……滑則病腎風疝……少陽……滑則病肝風疝……”

④ 冲疝

「骨空論篇」 “督脈者 起於少腹……此生病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 爲冲疝 其女子不孕……”

⑤ 厥疝

「五臟生成篇」 “……黃脈之至也 大而虛 有積氣在腹中 有厥氣 名曰厥疝……”

⑥ 卒疝

「繆刺論篇」 “邪客於足厥陰之絡 令人卒疝 暴痛 刺足大指爪甲上……”

⑦ 疝瘕

「平人氣象論篇」 “……寸口脈沈而弱 曰寒熱及疝 少腹痛……”

⑧ 心疝

a. 「脈要精微論篇」 “岐伯曰 病名心疝 少腹

9) 「太素」, 「脈經」 卷三 第一, 「千金方」, 「中藏經」에는 모두 瘕가 類로 되어 있고, 「甲乙經」 卷四 第二上에는 疝로 되어 있다. 陸懋修는 “瘕亦作隕 類 癰”라고 하였다. (精校黃帝內經靈樞 洪元植)

當有形也 帝曰 何以言之 岐伯曰 心爲牡臟 小腸爲之使 故曰 少腹當有形也”

b. 「大奇論篇」 “心脈搏滑急爲心病”

⑨ 肺疝

「大奇論篇」 “肺脈沈搏爲肺疝”

이상의 診籍에 나타난 疝病과 馬王堆 및 「靈樞」, 「素問」에 나타난 疝病을 比較 檢討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① 診籍에서 나타나는 疝에는 湧疝, 氣疝, 牡疝을 볼 수 있으며, 疝症의 病因으로 모두 房事를 들고 있다. 馬王堆에서는 疝의 종류로 疝과 偏疝을 언급하였고, 病因으로 厥陰脈의 是動病과, 所生病으로 파악하고 있다. 「靈樞」에서는 疝, 狐疝, 卒疝, 心疝을 言及하고 있고, 病因으로 肝足厥陰之脈의 是動病, 足陽明之筋病, 肝足厥陰之脈의 所生病, 腎下, 氣逆등을 들고 있다. 「素問」에서는 疝, 狐疝風, 五臟風疝, 冲疝, 厥疝, 卒疝, 疝, 心疝, 肺疝의 이름 가지 疝症을 言及하고 있으며, 病因으로 주로 厥陰脈을 關聯시키고 있으며, 陽明司天에 燥淫所勝한 경우와, 督脈이 從少腹上衝心而痛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病名과 病因만을 보아서는 診籍에서의 湧疝, 氣疝, 牡疝이 馬王堆나, 「靈樞」, 「素問」과 전혀 關聯性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診籍에서 나오는 湧疝, 氣疝, 牡疝이 「靈樞」나 「素問」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한 疾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靈樞」나 「素問」에 다른 病名으로 再構成되어 吸收되었거나, 아니면 疝症의 分類에 있어서는 診籍이 「素問」, 「靈樞」와는 完全히 다른 學問體系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그렇다면 診籍에서의 湧疝, 氣疝, 牡疝을 「靈樞」, 「素問」의 疝症과 比較하여 보자.

a. 診籍의 湧疝에 관한 설명은 단지 “不得前後澣”라는 症狀과 “病得之內”라는 病因만 있어, 「靈樞」와 「素問」에서 “不得前後澣”하는

증상을 볼 수 있는 것은 「素問」의 冲疝이 從少腹上衝心而痛하고 不得前後하는 症狀을 가지며, “病得之內”의 病因을 言及하고 있는 疝症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素問」의 冲疝은 ‘冲’이 ‘湧’과 비슷한 意味를 가지기에, 診籍의 湧疝은 「素問」의 冲疝과 類似한 것으로 사료된다.

b. 診籍에 나오는 氣疝은 婦人 出於의 病으로 難於前後 하며 少腹腫하는 症狀을 가지며, “欲溺不得 因以接內”하여 발생하였는데, 足厥陰脈을 灸하여 治療하였다. 이와 關聯이 있는 것을 보면 馬王堆 “陰陽十一脈灸經”의 “厥陰脈……是動則病 丈夫癩疝 婦人則少腹腫”이라 하여, 厥陰脈과 연계시켰고, 「靈樞」에서는 「經脈篇」에서 “肝足厥陰之脈……是動則病腰痛不可以俛仰 丈夫癩疝 婦人少腹腫……所生病者……狐疝……”, 「臟腑病形篇」에서 “肝脈急甚者爲惡言……滑甚爲癢疝”, 「經脈篇」에서 “足厥陰之別 名曰蠡溝……氣逆則舉腫卒疝……”, 「熱病篇」에서 “心疝暴痛 取足太陰厥陰 盡刺去其血絡”이라 하여, 癩疝, 狐疝, 卒疝, 心疝을 足厥陰脈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리고 馬王堆와 「靈樞 經脈篇」에서 婦人의 少腹腫을 말하고 있다. 「素問」에서의 癩疝을 살펴보면 「脈解篇」에서 “厥陰所謂癩疝 婦人少腹腫”, 「至真要大論篇」에서 “陽明司天……民病……丈夫癩疝 婦人少腹腫……”, 이라 하였다. 그리고 비록 「四時刺逆從論篇」에서 “厥陰……滑則病狐疝風”이라 하였고, 「骨空論篇」에서 “督脈者 起於少腹……此生病 從少腹上衝心而痛 不得前後爲冲疝……”이라 하였으나, 診籍의 氣疝은 馬王堆 “陰陽十一脈灸經”과 「靈樞 經脈篇」 및 「素問 脈解篇」에서 나오는 疝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c. 診籍의 牡疝은 “疝在膈下上連肺”한 증상을 가지며, 病因은 房事라 하는데, 馬王堆나

「靈樞」, 「素問」에서 類似한 점을 찾을 수 없다. 단지 “膈下上連肺”라는 症狀로 볼 때 아마도 「素問」의 肺風疝이나, 肺疝을 말한다고 여겨지나 더욱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② 馬王堆 「陰陽十一脈灸經」에서 “厥陰脈……是動則病 丈夫癩疝 婦人則少腹腫 腰痛 不可以仰 其所產病 熱中 偏疝……”이라 하였고, 「靈樞 經脈篇」에서 “肝足厥陰之脈……是動則病腰痛不可以傘仰 丈夫癩疝 婦人少腹腫……所生病者……狐疝……”이라 하여 「陰陽十一脈灸經」의 疝과 偏疝이 「靈樞 經脈篇」에서 疝과 狐疝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靈樞 經筋篇」에서는 “足陽明之筋……其病……疝”이라 하고, 「靈樞 本藏篇」에서는 “腎下則……爲狐疝……”이라 하여, 疝을 足陽明筋과 連繫시키고, 狐疝을 腎의 高下로 說明하는 것으로 보아, 馬王堆 「陰陽十一脈灸經」以後에 疝이 疝으로, 偏疝이 狐疝으로 단순히 名稱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病因에 있어서도 다른 學說이 導入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素問」에서는 疝을 太陽經, 厥陰經, 陽明司天을 연계시켜 설명하며, 狐疝을 狐疝風이라 하고 있다.

이로 볼 때 診籍에 나타나는 湧疝, 氣疝, 牡疝은 비록 「靈樞」와 「素問」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馬王堆의 癩疝과 偏疝과 마찬가지로 醫學理論의 發達과 더불어 새로운 用語로 바뀌어 再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 癩

### (1) 診籍

診籍에 齊王의 太后가 病이 들어, 淳于意가 診脈하여보니 風癩이 膀胱에 머무른 것으로, 症狀는 難於大小便, 溺赤하여, 火齊湯으로 치료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齊나라 章武里의 曹山附가 病이 들었는데, 淳于意가 診脈한 뒤 “肺消癩也 加以寒熱”이라 하였다.

### (2) 馬王堆

馬王堆에서는 「陰陽十一脈灸經」의 少陰脈條에서 所產病의 하나로 “其所產病 \* \* \* \* \* 舌拆 噎乾 上氣 噎 噎中痛 癩 嗜臥 欬 瘡 爲十病”이라 하여 癩을 들고 있다.

### (3) 「靈樞」

① 「經脈篇」 “足少陰脈……所生病 舌乾 咽腫 上氣 噎乾及痛 煩心 心痛 黃疸 腸 脊 股內後廉痛 痿厥 嗜臥 足下熱而痛 爲此諸病”

② 「歲露篇」 “少師答曰 正月朔日……二月 丑不風 民多心腹痛 三月戌不溫 民多寒熱 四月巳不暑 民多病 十月申不寒 民多暴死……”

③ 「論疾診尺篇」 “……故曰 冬傷於寒 春生熱 春傷於風 夏生泄腸 夏傷於暑 秋生 癩 秋傷於濕 冬生咳嗽”

④ 「刺節眞邪篇」 “凡刺五邪之方 不過五章 熱消滅 腫聚散亡 寒 益溫 小者益陽 大者必去”

⑤ 「邪氣臟腑病形篇」 “心脈……微小爲消……肺脈……微小爲消……肝脈……微小爲消……脾脈……微小爲消……腎脈……微小爲消癩”

### (4) 「素問」

① 「舉痛論篇」 “熱氣留於小腸 腹中痛 熱 焦渴 則堅乾不得出 故痛而閉不通矣”

② 「瘡論篇」 “其但熱而不寒者 陰氣先絕 陽氣獨發 則少氣煩 手足熱而欲嘔 名曰 癩”

③ 「瘡論篇」 “癩瘡者 肺素有熱 氣盛於身 厥逆上衝 中氣實而不外泄 因有所用力 理開 風寒舍於皮膚之內 分肉之間而發 發則陽氣盛 陽氣盛而不衰則病矣 其氣不及於陰 故但熱而不寒 氣內藏於心 而外舍於分肉之間 令人消脫肉 故命曰瘡瘡”

④ 「脈要精微論篇」 “帝曰 病成而變何謂 岐伯曰 風成爲寒熱 癩成爲消中 厥成爲癩 疾……”

이상으로 診籍, 馬王堆, 『靈樞』, 『素問』에서 言及한 에 關하여 拔萃하였으며, 診籍과 다른 醫書를 比較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알 수 있었다.

① 齊王 太后의 病은 風痺이 膀胱에 머무른 것으로, 症狀는 難於大小便, 溺赤하며, 火齊湯으로 치료하였다. 馬王堆에서는 「陰陽十一脈灸經」의 少陰脈條에서 所産病의 하나로 痺을 들고 있으나, 여기서의 이 어떠한 疾病인지 알 수 없다. 『靈樞』에서는 痺病, 痺熱, 消痺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診籍의 風痺이나 風痺의 中상을 언급하고 있는 곳은 없다. 『素問』에서는 痺熱, 痺痛을 언급하고, 또한 痺이 消中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風痺이라는 병명은 診籍에서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症狀이 難於大小便, 溺赤하다 하였는데, 이러한 中상을 가지는 으로는 『靈樞』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素問』의 「舉痛論篇」에서 “熱氣留於小腸 腹中痛 熱焦渴 則堅乾不得出 故痛而閉不通”이라 하여 痺熱이 風痺과 類似한 症狀임을 알 수 있다.

② 齊나라 章武里의 曹山 가 病이 들었는데 肺消痺으로 寒熱을 더하였다. 診籍의 肺消 이 病名만 나타나므로 어떠한 疾患인지 確인할 수는 없지만, 『靈樞 邪氣臟腑病形篇』에서 “心脈……微小爲消痺……肺脈……微小爲消……肝脈……微小爲消痺……脾脈……微小爲消……腎脈……微小爲消痺”라 한 것으로 보건대, 肺脈이 微小한 것을 肺消痺이라 하지 않았나 여겨진다.

③ 그런데 馬王堆 「陰陽十一脈灸經」의 少陰脈條에서 所産病의 하나로 “其所産病 \* \* \* \* \* 舌拆 噎乾 上氣 噎 噎中痛 痺 嗜臥 欬 瘖 爲十病”이라 하여 痺을 들고 있으나, 『靈樞 經脈篇』에서는 “足少陰脈……所生病 舌乾 咽腫 上氣 噎乾 及痛 煩心 心痛 黃疸 腸澼 脊股內後廉痛 痿厥 嗜臥 足下熱而痛 爲此諸

病”이라고 하여 이 없다. 그리고 『靈樞 論疾 診尺篇』에서 “冬傷於寒 春生痺熱 春傷於風 夏生 泄腸澼 夏傷於暑 欬瘖 秋傷於濕 冬生咳嗽”라 하였고, 『素問 陰陽應象大論篇』에서는 “冬傷於寒 春必溫病 春傷於風 夏生飧泄 夏傷於暑 欬瘖 秋傷於濕 冬生咳嗽”라 하여, 『靈樞』의 熱이 『素問』에서는 溫病으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文獻에 따라 用語를 달리하는 問題는 좀더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6) 瘕

(1) 診籍

① “齊中尉인 潘滿如가 少腹痛이 있는데, 病名은 遺積 이며, 病因은 酒且內이다.”

② “臨菑汜里의 女子 薄吾의 病은 蟻瘕로 腹大上膚黃序하며, 循之戚戚然한데, 病因은 寒濕이며 寒濕氣가 宛篤不發하여 蟲이 된 것이다.”

(2) 馬王堆

「陰陽十一脈灸經」의 臂鉅陰脈을 보면 其所産病에 “胸痛 皖痛 心痛 四末痛 瘕 爲五病”이라 하였다.

(3) 『靈樞』

「經脈篇」 “脾足太陰之脈……所生病者 舌本痛 體不能動搖 食不下 煩心 心下急痛 澹瘕泄 水閉 黃疸 不能臥 強立 股膝內腫厥 足大指不用……”

(4) 『素問』

『素問』에서의 瘕

① 「大奇論篇」 “腎脈小急 肝脈小急 心脈小急 不鼓皆爲瘕”

② 「大奇論篇」 “三陽急爲 三陰急爲疝”

③ 「骨空論篇」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瘕聚”

④ 「至真要大論篇」 “厥陰司天 風淫所勝……民病……冷泄腹脹澹泄瘕水閉……”

診籍에서 말하는 遺積瘕나, 蟻瘕라는 病名은 馬王堆, 『靈樞』, 『素問』에서 나타나지 않

는다. 그리고, 馬王堆에서는 「陰陽十一脈灸經」의 臂鉅陰脈에서 所産病으로 瘕를 말하며, 「靈樞」에서는 瘕가 나타나며, 「素問」에서도 瘕, 瘕聚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病名만 가지고는 關聯性을 類推할 수 없다. 단지 遺積瘕의 症狀이 少腹痛하며, 病因은 酒且內이며, 繞瘕는 症狀이 腹大上膚黃蠱하며, 循之戚戚然하고, 病因은 寒濕이며, 寒濕이 宛篤不發하여 蟲이 된 것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下腹部의 疾患이거나, 寄生蟲疾患을 意味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瘕를 馬王堆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手太陰脈의 所生病으로 보았으나, 「靈樞 經脈篇」에서는 足太陰脈의 所生病으로 본다.

## 7) 迴風

### (1) 診籍

① “陽虛侯相趙章病……臣意診其脈 曰迴風 迴風者 飲食下噎 而輒出不留……病得之酒……”

② “齊淳于司馬病 臣意切其脈告曰 當病迴風 迴風之狀 飲食下噎 輒後之 病得之飽食而疾走”

### (2) 馬王堆

迴風에 관한 내용은 없다.

### (3) 「靈樞」

① 「經脈篇」 “肝足厥陰之脈……所生病者 胸滿 嘔逆 噎泄 狐疝”

② 「四時氣篇」 “噎泄補三陰之上 補陰陵泉 皆久留之 熱行乃止”

③ 「師傳篇」 “腸中寒 則腸鳴噎泄”

④ 「玉版篇」 “咳嘔 腹脹且噎泄 其脈絕 是五逆也”

⑤ 「百病始生篇」 “是故虛邪之中人也 始於皮膚……傳舍於腸胃 在腸胃之時 賁嚮腹脹 多寒則腸鳴噎泄 食不化……”

⑥ 「論疾診尺篇」 “嬰兒病……大便赤瓣噎泄 脈小者手足寒難已 泄脈小手足溫泄易已”

⑦ 「論疾診尺篇」 “春傷於風 夏生噎泄澀”

⑧ 「脹論篇」 “大腸脹者 腸鳴而痛濯濯 冬日重感於寒 則噎泄不化”

⑨ 「靈樞 邪氣臟腑病形篇」 “腎脈……緩甚爲折脊 微緩爲洞 洞者 食不化 下噎還出……小甚爲洞泄 微小爲消痺……”

### (4) 「素問」

⑩ 「四氣調神大論篇」 “秋三月 此謂容平……此秋氣之應 養收之道也 逆之則傷肺 冬爲噎泄 奉藏者少”

⑪ 「金匱 眞言論篇」 “……冬不病痺厥噎泄……”

⑫ 「陰陽應象大論篇」 “……清氣在下 則生噎泄……”

⑬ 「陰陽應象大論篇」 “……春傷於風 夏生噎泄……”

⑭ 「脈要精微論篇」 “……病成而變何謂……久風爲噎泄……”

⑮ 「臧氣法時論篇」 “脾病者……噎泄 食不化”

⑯ 「太陰陽明論篇」 “……食飲不節 起居不時者 陰受之……陰受之則入五藏……入五藏則 滿閉塞 下爲噎泄 久爲腸澀”

⑰ 「舉痛論篇」 “……怒則氣逆 甚則嘔血及噎泄 故氣上矣……”

⑱ 「風論篇」 “久風入中 則爲腸風噎泄”

⑲ 「痺論篇」 “腸痺者 數飲而出不得 中氣喘爭 時發噎泄”

⑳ 「調經論篇」 “志有餘則腹脹噎泄 不足則厥”

㉑ 「六微旨大論篇」 “歲土不及……民病 噎泄霍亂……”

㉒ 「氣交變大論篇」 “歲木太過 風氣流行 脾土受邪 民病噎泄……”

㉓ 「五常政大論篇」 “卑監之紀……其病噎泄 邪傷脾也”

㉔ 「至眞要大論篇」 “厥陰之勝……腸鳴噎

泄 少腹痛……”

② 「素問 生氣通天論篇」 “是以春傷於風 邪氣留連 乃爲洞泄……”

④ 「素問 金匱眞言論篇」 “……長夏善病 洞泄寒中……”

診籍에서는 迴風이 두 곳에서 나오는데, 陽虛侯의 宰相인 趙章의 병에 淳于意가 迴風이라 하고, 迴風은 “飲食下噎而輒出不留” 하며, 病因은 飲酒라 하였고, 齊의 淳于司馬의 病도 迴風이며, “飲食下 輒後之”라 하였고, 病因은 飽食而疾走라 하였다. 여기에서 迴風의 症狀은 음식을 먹자마자 바로 泄瀉를 하는 것이며, 病因으로 飲酒와 飽食而疾走를 들고 있다.

診籍에 나오는 迴風은 馬王堆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靈樞」, 「素問」에서도 迴風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깨뚫다’, ‘비다(空)’, ‘빠르다’의 의미를 가진 洞을 사용한 洞泄이 보인다. 「靈樞」와 「素問」에 나타난 洞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靈樞 邪氣臟腑病形篇」 “腎脈……緩甚爲折脊 微緩爲洞 洞者 食不化 下噎還出…… 小甚爲洞泄 微小爲洞瀉……”

② 「素問 生氣通天論篇」 “是以春傷於風 邪氣留連 乃爲洞泄……”

③ 「素問 金匱眞言論篇」 “……長夏善病 洞泄寒中……”

診籍에서 말하는 迴風과 「靈樞 邪氣臟腑病形篇」에서 말하는 洞泄은 그 症狀이 서로 비슷하며, 診籍에서는 迴風의 原因으로 飲酒와 飽食而疾走를 들어 內傷性 原因을 주로 들고 있으나, 「素問 生氣通天論篇」과 「素問 金匱眞言論篇」에서 말하는 洞泄은 風邪에 傷하여 發生한 外感性 疾患을 意味한다.

그리고 「靈樞 論疾診尺篇」에서 “春傷於風

夏生飧泄腸澼”이라 하였는데,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는 “春傷於風 夏生飧泄”이라 하였으나, 「素問 生氣通天論篇」에서는 “是以春傷於風 邪氣留連 乃爲洞泄”은 春傷於風하였을 경우에 「素問」에서는 洞泄과 飧泄이 混用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迴風과 洞泄 그리고 飧泄의 關係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靈樞」, 「素問」에 나타난 飧泄을 살펴보자.

위에서 引用한 文句를 중심으로 飧泄을 살펴보면, 「靈樞」에서는 足厥陰脈의 所生病으로 보며, 그 原因으로 腸中寒, 春傷於風의 두 가지를 들고 있으며, 飧泄의 症狀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素問」에서는 飧泄의 原因으로 逆養受之道, 清氣在下, 春傷於風, 久風, 食飲不節 起居不時, 甚怒, 腸痺외에 運氣上으로 歲土不及, 歲木太過, 卑監之紀, 厥陰之勝의 해에 泄이 發生한다고 보았으며, 飧泄이 어떠한 症狀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飧이란 이라고도 쓰는데 ‘저녁밥’, ‘깃다’, ‘말다’, ‘먹다’의 意味를 가진 글이다. 飧이란 글자가 泄이라는 글자와 합쳐진 것을 보건대 ‘말다’의 意味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말다’는 밥을 물이나 국물 같은 데에 넣어 품을 말한다. 즉 飧泄이란 泄瀉의 모습이 밥을 물에 풀어놓은 듯한 모습을 보고 飧泄이라 이름한 것이다. 즉 腸寒하여 食不化한 뒤 泄瀉한 大便의 모습이 清稀하며, 不消化의 食物殘渣가 섞이고, 腸鳴腹痛<sup>10)</sup>하는 모습을 보고 이름하여 飧泄이라 하였다. 이 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診籍의 迴風은 「靈樞」와 「素問」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診籍의 迴風은 「靈樞」의 洞泄과 같다.

③ 「靈樞」, 「素問」 모두에서 洞泄과 飧泄이 나타난다.

10) 漢醫學辭典, P.439

④ 「靈樞」의 泄瀉은 「素問」에서 泄瀉 또는 洞泄로 나타난다.

⑤ 診籍에서는 風의 原因으로 飲酒와 飽食而疾走를 들고, 「靈樞」에서는 泄瀉의 原因으로 足厥陰脈의 所生病, 腸中寒, 春傷於風을 들고 「素問」에서는 泄瀉의 原因으로 逆養受之道, 清氣在下, 春傷於風, 久風, 食飲不節 起居不時, 甚怒, 腸痺외에 運氣上으로 歲土不及, 歲木太過, 卑監之紀, 厥陰之勝의 해를 言及하여, 점차 여러 가지 病因으로 늘어남을 볼 수 있다.

이로써 推理하건대 診籍의 迴風은 醫學의 發展에 따라 洞泄과 泄瀉로 변하였으며, 迴風은 먼저 洞泄으로 바뀌고, 다시 洞泄과 泄瀉로 分化된 것으로 보인다.

8) 齲齒

(1) 診籍

齊中大夫의 병이 齒로 淳于意가 左手陽明脈을 灸하고 苦蓼湯으로 매일 三升씩 양치질하길 五六日이 지나 治療되었으며, 病因은 風及臥開口食而不嗽이다.

(2) 馬王堆

① 「足臂十一脈灸經」 “臂陽明脈 出中指間 循骨上廉 出髑 \* \* 上 湊枕 之口 其病 病齒痛…… 皆灸臂陽明脈”

② 「陰陽十一脈灸經」 “齒脈 起於次指與大指上 出臂上廉 入肘中 乘髑 穿頰 入齒中 挾鼻 是動則病 齒痛 腫 是齒脈主治 其所產病 齒痛 頰腫……”

③ 「胎產書」 “禹問幼頰曰……七月而木受之 乃使成骨……美齒……”

(3) 「靈樞」

① 手陽明脈과 齒牙

a. 「經脈篇」 “大腸手陽明之脈……入下齒中……”

b. 「經脈篇」 “大腸手陽明之脈……是動則病齒痛……”

c. 「經脈篇」 “手陽明之別名曰偏歷 去腕三寸別入太陰 其別者 上循臂 乘肩髃上曲頰偏齒 其別者入耳 合于宗脈 實則齲齲 虛則齒寒痺隔 取之所別也”

d. 「雜病篇」 “齒痛 不惡清飲 取足陽明 惡清飲 取手陽明”

e. 「寒熱病篇」 “臂陽明有頰偏 齒者 名曰大迎 下齒齲取之……足太陽有入頰偏 齒者 名曰角孫 上齒齲取之”

② 足少陰脈과 齒牙

a. 「五味論篇」 “齒者 骨之所終也”

b. 「終始篇」 “少陰終者 面黑 齒長而垢……”

c. 「經脈篇」 “足少陰氣絕 則骨枯……骨肉不相親 則肉軟却 肉軟却 故齒長而垢……”

d. 「寒熱病篇」 “骨寒熱者 病無所安 汗注不休 齒未槁 取其少陰于陰股之絡 齒已槁 死不治 骨厥亦然”

③ 足太陽脈과 齒牙

a. 「經脈篇」 “胃足陽明之脈……入上齒中……”

b. 「雜病篇」 “齒痛 不惡清飲 取足陽明 惡清飲 取手陽明”

④ 足太陽脈과 齒牙

「寒熱病篇」 “臂陽明有入 齒者 名曰大迎 下齒齲取之 取之臂 惡寒補之 不惡寒瀉之 足太陽有入 齒者 名曰角孫 上齒齲取之 取之在鼻與頰前”

(4) 「素問」

① 手陽明脈과 齒牙

「繆刺論篇」 “齒齲者手陽明 不已 刺其脈入齒中 立已……”

② 足少陰脈과 齒牙

a. 「上古天真論篇」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丈夫八歲 腎氣實 髮長齒更……五八 腎氣衰 髮墮齒槁……八八則齒髮去”

b. 「診要經終論篇」 “少陰終者 面黑 齒長而垢……”



c. 「痿論篇」 “腎熱者 色黑而齒槁”

d. 「至眞要大論篇」 “歲少陰在泉 熱淫所勝……民病……齒痛 頰腫”

診籍에서 말하는 齒란 俗稱 蟲齒를 말한다. 病因으로 食後에 양치질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았는데 상당히 과학적이다. 治法으로 左側 手陽明脈에 뜸을 놓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齒牙와 手陽明脈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左側을 굳이 표시한 것으로 보아 繆刺法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齒牙와 經脈과의 關係는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馬王堆와 「靈樞」, 「素問」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馬王堆에는 「足臂十一脈灸經」에서 “臂陽明脈……病齒痛…… 皆灸臂陽明脈”이라 하였고, 「陰陽十一脈灸經」에서 “齒脈……入齒中 挾鼻 是動則病 齒痛……其所產病 齒痛……”이라 하여, 臂陽明脈, 齒脈 “臂陽明脈, 齒脈은 「靈樞 經脈篇」에 나오는 手陽明脈의 元祖로 여김”과 齒痛이 서로 關聯이 있으며 그 脈을 灸하여 治療한다고 한다.

② 「靈樞」에서는 齒牙가 手陽明脈, 足陽明脈, 足太陽脈, 足少陰脈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馬王堆와 診籍에서는 齒牙의 病을 手陽明脈으로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靈樞」에서는 足陽明脈, 足太陽脈, 足少陰脈을 齒牙와 관련 지었을까?

먼저 「足臂十一脈灸經」의 臂陽明脈과 「陰陽十一脈灸經」의 齒脈, 그리고 「靈樞 經脈篇」의 手陽明脈의 原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臂陽明脈：出中指間 循骨上廉 出臑 \* \* 上 痰枕 之口 其病 病齒痛…… 皆灸臂陽明脈

b. 齒脈：起於次指與大指上 出臂上廉 入肘中 乘臑 穿頰 入齒中 挾鼻 是動則病 齒痛 頰腫 是齒脈主治 其所產病 齒痛 頰腫……”

c. 大腸手陽明之脈：(1)起於大指次指之端 循之上廉 (2)出合谷兩骨之間 上入兩筋之中 (3)循臂上廉 入肘外廉 上臑外前廉 (4)上肩 出臑骨之前廉 上出於柱骨之會上 下入缺盆 絡肺 下膈 屬大腸 其支者 從缺盆上頰 (5)貫頰 入下齒中 還出挾口 交人中 左之右 右之左 上挾鼻孔 是動則病齒痛 頰腫……”

이 셋을 비교하면 「靈樞 經脈篇」에서 (2) 부분과 (4)부분을 제외하면 「陰陽十一脈灸經」의 齒脈과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臂陽明脈은 脈의 흐름이 「靈樞 經脈篇」에 비하여 아주 단순하다. 齒脈에서는 次指와 大指上에서 나와 肘, 臑, 頰을 거쳐 齒로 들어가며 鼻를 낀다고 하였고, 手陽明脈은 大指와 次指端에서 나와 肘, 臑를 거쳐 肺와 大腸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그 한 分枝가 頰을 거쳐 下齒로 들어가며, 입을 거쳐 鼻를 낀다고 한다.

이로써 次指와 大指上에서 나와 肘, 臑, 頰을 거쳐 齒로 들어가며, 鼻를 낀 脈이 經絡學說의 形成初期에는 齒가 주된 關聯性을 가진 脈으로 여겼다가, 醫學이 發展함에 따라 漸次 肺와 大腸과의 關聯性을 주된 것으로 여겼으며, 한 分枝로써 下齒와의 關聯性을 함과 하고, 上齒는 「靈樞 經脈篇」의 足陽明脈에서 비로소 “入上齒中”이라 하여 함及됨을 알 수 있다. 즉 齒病은 초기에는 齒脈을 치료하였으나, 그 뒤 上齒와 下齒의 區分으로 手陽明脈과 足陽明脈으로 나누어 치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足少陰脈과 齒牙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明確히 알기 어려우나 아마도 五行臟象學說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足少陰脈과 齒牙와의 關聯性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足臂十一脈灸經」의 足少陰脈을 보면 內踝에서 나와 臑, 股를 거쳐 腹으로 들어가며,

肝, 肘를 거쳐 舌에 연계된다고 하여 齒와의 관계는 찾을 수 없다. 「經脈篇」의 足少陰脈을 찾아보면 小趾下에서 나와, 足心, 內踝, 臑, 臑, 股, 脊을 거쳐 腎과 膀胱에 連繫되며, 肝, 肺를 거쳐 舌本에 連繫되며 分枝가 肺와 心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여기서도 足少陰脈과 齒와의 關聯性에 대한 言及은 없다. 그런데 같은 「經脈篇」에서 “足少陰氣絕 則骨枯 少陰者 冬脈也……骨肉不相親 則肉軟却 肉軟却 故齒長而垢 髮無澤 髮無澤者 骨先死 戊篤己死 土勝水也”라 하였고, 「五味論篇」에서도 “齒者 骨之所終也”라 하였는데, 여기서도 足少陰이 骨, 冬, 齒, 髮, 水와 서로 關聯性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齒牙와 관련된 經脈이 人體를 이어주는 線狀의 構造物을 말한 馬王堆의 齒脈이나 臂陽明脈에서 두 가지 方向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齒牙와 관련된 脈을 더욱 精密하게 觀察하여 人體의 脈을 더욱 細密하게 表現하여 大腸 手陽明脈 및 胃足陽明脈이 되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馬王堆出土醫書에서는 五行學說의 影響이 보이지 않으나, 以後에 五行學說의 影響을 받아 人體 各部의 關聯性을 把握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五行學說의 影響으로 骨을 腎에 배속하고 齒牙는 骨之所終이며, 腎은 足少陰腎脈에 속하니 自然히 足少陰腎과 齒牙가 서로 관련을 맺게 되며, 足少陰腎脈이 衰하면 自然히 齒長而垢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靈樞」의 「寒熱病篇」에서는 上齒와 下齒의 關聯脈을 足太陽과 臂陽明으로 보았으나, 「經脈篇」에서는 足陽明脈과 手陽明脈으로 보았다. 두 篇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經脈篇」에서는 經脈의 流注路線에 의하여 上齒와 下齒의 관련을 설명하고 있으며, 手陽明脈에서만 齒痛이 있다 하였고, 足陽明脈

에서는 齒痛이나 蟲齒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寒熱病篇」에서는 臂陽明脈과 足太陽脈이 각각 鬚을 거쳐 齒로 들어가는 脈을 이름하여 大迎과 角孫이라 하고 下齒와 上齒의 蟲齒에 팔뚝 및 코와 鬚 사이를 取한다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齒病을 治療함을 보여준다. 「經脈篇」의 足太陽脈에서는 그 脈의 흐름도 齒를 거치지 않으며, 그 病도 齒에 關한 言及이 없다.

이로써 초기에는 手陽明脈인 齒脈과 臂陽明脈으로 齒牙를 關聯시켰으나, 점차 醫學發展을 거치면서 手陽明脈과 함께 足陽明脈, 足少陰脈, 足太陽脈도 關聯시켰다. 그리고 診籍에 나타나는 “齊中大夫病 齒 臣意灸其左手陽明脈”에서 蟲齒의 治療에 左右의 區別을 하였고, 手陽明脈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中大夫의 病은 右側 下齒의 蟲齒임을 알 수 있으며, 診籍의 經脈理論은 馬王堆出土醫書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素問」에서는 「靈樞」와 달리 齒病에서 手陽明脈과 足少陰脈을 言及하고 있다. 手陽明脈과 關聯시킨 것은 「素問 繆刺論篇」에서 나오며, 足少陰脈과 連繫시킨 것은 五行配屬에 따라 少陰, 腎, 齒를 連繫시키며, 「上古天真論篇」외에 다수 나오는 것으로 보아 「素問」에서는 「靈樞」와 달리 脈이 어디로 흐르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五行配屬에 따라 어느 脈과 더 關聯이 깊은가에 重點을 둔 것으로 보인다.

## 9) 痺

### (1) 診籍

① 宋建의 病으로 腎痺인데, 그 증상은 要脅痛, 不可俯仰, 不得小溲하며, 그 病因은 好持重인데, 柔湯으로 치료하였다.

② 齊王이 陽虛侯 時節에 걸린 病으로, 淳于意가 진맥한 뒤 痺라 하였으며, 그 症狀은 “根在右脅下 大如覆杯 令人喘 逆氣 不能食”

하며, 病因은 房事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2) 馬王堆

① 「足臂十一脈灸經」 “足厥陰脈……其病 病陞瘦 多溺 嗜飲 足跗腫 疾癢 灸諸病此物者 厥陰脈”

② 「陰陽十一脈灸經」 甲本 “鉅陽脈……其 所產病 頭痛 耳聾……足小指痺 爲十二病”

③ 「陰陽十一脈灸經」 甲本 “少陽脈……其 所產病……膝外廉痛振寒 足中指蹠(痺) 爲十二 病”

④ 「陰陽十一脈灸經」 甲本 “肩脈……其所 產病 領(頤)痛 喉痺 臂痛 肘痛 爲四病”

⑤ 「陰陽十一脈灸經」 乙本 “巨陽脈……其 所產病 頭痛 耳聾……足小指痺 爲十二病”

⑥ 「陰陽十一脈灸經」 乙本 “少陽脈……其 所產病……膝外廉痛 振寒 足中指痺 爲十二 病”

⑦ 「陰陽十一脈灸經」 乙本 “陽明脈……其 所產病……腸痛 膝足痿痺 爲十病”

⑧ 「陰陽十一脈灸經」 乙本 “肩脈……其所 產病 領(頤)痛 喉痺 臂痛 肘痛 爲四病”

⑨ 「導引圖」 第四行 39 引(左月右界)痛

(3) 「靈樞」

① 「經脈篇」 “大腸手陽明之脈……所生病 者 目黃 口乾 齟齬喉痺 大指次指痛不用”

② 「經脈篇」 “胃陽明之脈……所生病 者……頸腫 喉痺 大腹水腫 膝腫痛”

③ 「經脈篇」 “三焦手少陽之脈……是動則 病 耳雙渾渾惺惺 噎腫 喉痺”

④ 「經脈篇」 “黃帝曰……雖無結 急取之 以寫其邪而出其血 留之發爲痺也. 凡診絡 脈……手魚之絡……其暴黑者 留久痺也”

⑤ 「經脈篇」 “手陽明之別……實則齟齬 虛 則齒寒痺膈 取之所別也”

⑥ 「經脈篇」 “足陽明之別……其病氣逆則 喉痺卒瘕”

⑦ 「經筋篇」 “足太陽之筋……其病……名

曰仲春痺也. 足少陽之筋……孟春痺也. 足陽明 之筋……季春痺也. 足太陰之筋…… 足少陰之筋……仲秋痺也. 足厥陰之筋……季 秋痺也. 手太陽之筋……仲夏痺也. 手少陽之 筋……季夏痺也. 手陽明之筋……孟夏痺也. 手 太陰之筋……仲冬痺也. 手心主之筋……孟冬 痺也. 手少陰之筋……季冬痺也”

(4) 「素問」

① 「五臟生成篇」 “青脈之至也 長而左右彈 有積氣在心下支法名曰肝痺 得之寒濕 與疝同 法 腰痛足清頭痛……黑脈之至也 上堅而大 有積氣在小腹與陰 名曰腎痺 得之沐浴清水而 臥”

② 「痺論篇」 “風寒濕三氣雜至 合而爲痺也”

③ 「痺論篇」 “以冬遇此者爲骨痺 以春遇此 者爲筋痺 以夏遇此者爲脈痺 以至陰遇此者爲 肌痺 以秋遇此者爲皮痺”

④ 「痺論篇」 “五臟皆有合 病久而不去者 內舍於其合也 故骨痺不已 復感於邪 內舍於 腎……”

⑤ 「痺論篇」 “肺痺者 煩滿喘而嘔 心痺者 脈不通 煩則心下鼓 暴上氣而喘 噎乾善噫 厥 氣上則恐 肝痺者 夜臥則驚 多飲 數小便 上 爲引如懷 腎痺者 善脹 尻以代踵 脊以代頭 脾痺者 四支解墮 發咳嘔汁 上爲大塞 腸痺者 數飲而出不得 中氣喘爭 時發泄泄 胞痺者 少 腹膀胱之內痛 若沃以湯 澁於小便 上爲清涕”

診籍에서 言及된 宋建의 腎痺와 陽虛侯의 痺症은 馬王堆에서 보이지 않으며, 단지 馬 王堆에서는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足厥陰 脈에서 한번 나타나며, 陰陽十一脈灸經에서는 甲本에서 足太陽脈, 足少陽脈, 手太陽脈의 所 產病에서 나타나며, 乙本에서는 足太陽脈, 足 少陽脈, 足陽明脈, 手太陽脈에서 나타난다. 「陰陽十一脈灸經」甲本에서는 足小指, 足中指, 喉에 「陰陽十一脈灸經」乙本에서는 足小指, 足中指, 喉에 痺症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단

순히 어떠한 人體部位의 痺症으로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좀 다른 것으로 「足臂十一脈灸經」의 疾痺와 「陰陽十一脈灸經」乙本の 痺가 있다. 疾痺는 본디 疾界로 되어 있는데, 馬王堆醫書考注에서는 疾은 患으로, 界는 痺로 보아 患痺<sup>11)</sup>로 여긴다. 痺는 본디 위(上竹下胃)界로 되어 있는데, 馬王堆醫書考注에서 痿痺<sup>12)</sup>로 보았다. 그리고 導引圖에서 나오는 引比(左月右界)痛은 馬王堆醫書考注에서 比(左月右界)를 痺나 髀로 보아 引痺痛이나 引髀痛으로 보아, 引痺痛은 痺痛이나 痛에 대한 導引法을 말한다. 그러므로 診籍에서 말하는 臟腑와 關聯된 痺症은 馬王堆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단순히 人體의 四肢에 痺症이 있음을 말하였다.

「靈樞」와 「素問」에서는 全篇에 걸쳐 많은 量의 痺症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전부 밝혀 痺症을 고찰하는 것은 省略하고 診籍의 痺症과 馬王堆의 關聯 있는 內容만 거론하기로 한다.

「靈樞」에서는 腎痺를 찾아 볼 수 없고, 陽虛侯의 痺와 症狀이 같은 痺症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經脈篇」에서는 馬王堆에서 言及한 人體의 經脈과 關聯지운 四肢의 痺症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十二經筋과 關聯지위 「經筋篇」에서 仲春痺, 孟春痺, 季春痺, 孟秋痺, 仲秋痺, 季秋痺, 仲夏痺, 季夏痺, 孟夏痺, 仲冬痺, 孟冬痺, 季冬痺의 12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素問」에서는 대체로 五行과 痺症을 連繫시켜 「五臟生成篇」에서는 心痺, 肺痺, 肝痺, 腎痺를, 「痺論篇」에서는 骨痺, 筋痺, 脈痺, 肌痺, 皮痺 및, 肺痺, 心痺, 肝痺, 腎痺, 脾痺, 腸痺, 胞痺를 言及하고 있다. 「素問」에서 언급하고

있는 腎痺는 “腎痺者 善脹 尻以代踵 脊以代頭”라 하여 診籍에서 要脅痛, 不可俯仰, 不得小溲하는 症狀과는 약간 差異가 나며, 病因도 「素問」에서는 沐浴清水而臥라 하였고, 診籍에서는 好持重이라 하여 다르다. 그러나 비록 診籍과 「素問」의 腎痺가 완전히 一致하지는 아니하지만 五行配屬에 따른 側面에서 보면 같은 內容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馬王堆의 痺症 分類는 經脈理論을 爲主로 하여 「靈樞」의 痺症 分類와 恰似하며, 診籍의 痺症 分類는 五行理論을 爲主로 하여 「素問」의 痺症 分類와 恰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月事不下

##### (1) 診籍

濟北王의 侍者인 韓女가 병이 들어 腰背痛과 寒熱이 있는데 衆醫가 모두 寒熱로 보았으나 倉公은 內寒으로 因하여 月事が 내리지 않는다고 보아 治療하였으며 病因은 欲男子而不可得이라 하였다. 그 치료법으로 ‘竄以藥’이라 하여 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馬王堆

月事に 관한 內容이 없다.

##### (3) 「靈樞」

「水脹篇」“石瘕生於胞中 寒氣客於子門 子門閉塞 氣不得通 惡血當瀉不瀉 衄以留止 日以益大 狀如懷子 月事不以時下 皆生於女子 可導而下”

##### (4) 「素問」

「陰陽別論篇」“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 其傳爲風消 其傳爲息賁者 死不治”

「評熱病論篇」“月事不來者 胞脈閉也 胞脈者屬心 而絡於胞中 今氣上迫肺 心氣不得下通

11) 馬王堆醫書考注. P.15

12) 馬王堆醫書考注. P. 237

故月事不來也”

「腹中論篇」“病名血枯 此得之年少時 有所大脫血。若醉入房 中氣竭 肝傷 故月事衰少不來也”

淳于意는 濟北王의 侍者인 韓女의 病이 內寒으로 因하여 月事が 내리지 않으며, 그 증상은 腰背痛과 寒熱로 보아 治療하였으며 病因은 欲男子而不可得이라 하였다. 그 치료법으로 ‘竄以藥’이라 하여 熏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衆醫가 그 症狀인 腰背痛과 寒熱만 보고 寒熱이라 하였으나, 淳于意는 그 脈을 보아 肝脈이 弦하여 欲男子而不可得이라는 原因을 알고, 腎脈이 蓄而不屬하여 月事不來를 알게 된다.

馬王堆에서는 女子의 月事不來에 關한 內容이 없어, 그 醫學的 水準이 어떠한 가에 대하여 舉論할 수 없다.

「靈樞」에서는 「水脹篇」에서 石을 설명하면서 그 한 증상으로 月事不以時下를 언급하고 있다.

「素問」에서는 「陰陽別論篇」에서 “二陽之病發心脾 有不得隱曲 女子不月”이라 하였고, 「評熱病論篇」에서 “月事不來者 胞脈閉也 胞脈者屬心 而絡於胞中 今氣上迫肺 心氣不得下通 故月事不來也”라 하였고, 「腹中論篇」에서 血枯하면 月事衰少不來하며, 그 原因으로 醉入房, 中氣竭, 肝傷을 들고 있다.

以上에서 淳于意의 月事不來에 關한 說明이 「素問」의 月事不來와 恰似하나, 「素問」에서 言及하지 않고 있는 肝氣鬱滯로 인한 月事不來를 言及하고 있어, 오히려 「素問」에서 言及된 月事不來보다 더욱 成熟된 理論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것은 黃帝扁鵲之脈書를 배운 淳于意가 「黃帝內經」과 같은 醫經의

形成以前 사람이라는 사실로 볼 때, 첫째로 淳于意 個人的으로 月事不來에 關하여 當時의 醫師보다 깊게 알고 있었으나, 後代에 전하여지지 않았거나, 둘째로 淳于意 時代에 普遍的인 知識이 後代에 내려오면서 「靈樞」와 「素問」과 같은 醫學文獻에 整理되면서 漏落되었을 可能性이 있음을 意味한다. 이러한 점에 關하여서는 더 研究되어야 할 것이다.

### 11) 苦奮風

#### (1) 診籍

安陽 武都里의 成開方의 病이 苦奮風으로 四肢不能自用하며 병어리가 되어 죽었으며, 病因은 數飲酒以見大風氣하여 얻은 것이라 하였다.

苦奮風이란 病名은 馬王堆, 「靈樞」, 「素問」에서 나타나지 않아, 診籍과의 相關關係를 찾을 수 없다.

### 12) 中熱

#### (1) 診籍

齊王 侍醫인 遂의 病을 診療한 뒤 그 病名은 中熱이라 하였고, 中熱不洩者는 五石<sup>13)</sup>을 服用하면 癰疽가 發生하므로 안된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遂는 죽었다고 한다.

#### (2) 馬王堆

中熱에 關한 內容이 없다.

#### (3) 「靈樞」

① 「終始篇」“厥陰終者 中熱 噎乾 喜溺 心煩 甚則舌卷 卵上縮而終矣”

② 「師傳篇」“夫中熱消瘵則便寒 寒中之屬則便熱 胃中熱則消穀 令人懸心善饑 臍以上皮熱 腸中熱 則出黃如糜 臍以下皮寒<sup>14)</sup>……”

③ 「五癰津液別篇」“中熱則 胃中消穀”

#### (4) 「素問」

① 「診要經終論篇」“厥陰終者 中熱 噎乾

13) 五石：楊士孝에 따르면 陽起石, 鐘乳石, 靈磁石, 空青石, 金剛石을 말한다고 한다.

14) 寒을 熱로 함이 옳다. (精校黃帝內經靈樞)

善弱 心煩 甚則舌卷 卵上縮而終矣”

② 「刺腰痛篇」 “腰痛上寒 刺足太陽陽明上熱刺足厥陰 不可以傘仰 刺足少陽 中熱而喘 刺足少陰 刺 中出血”

③ 「風論篇」 “風氣與陽明入胃 循脈而上至目內 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 則爲熱中而目黃 人瘦則外泄而寒 則爲寒中而泣出”

④ 「氣交變大論篇」 “歲火太過 炎暑流行 金肺受邪 民病衄 少氣 咳喘 血溢 血泄 注下 噎燥 耳聾 中熱 肩背熱 上應熒惑星”

診籍에서 齊王 侍醫인 遂의 病을 中熱이라 하였는데, 馬王堆에서는 中熱에 관한 내용이 없다.

「靈樞」에서는 「終始篇」에서 厥陰終者는 中熱의 증상을 가진다고 하였고, 「師傅篇」에서 “中熱消瘴則便寒 寒中之屬 則便熱 胃中熱則消穀 令人懸心善饑 臍以上皮熱 腸中熱則出黃如 臍以下皮熱”이라 하였고, 「五藏津液別篇」에서 “中熱則 胃中消穀”이라 하여, 中熱을 다시 胃中熱과 腸中熱로 나누어 그 症狀를 밝히고 있다.

「素問」에서는 「診要經終論篇」에서 「靈樞終始篇」과 같이 “厥陰終者 中熱”이라 하였고, 「刺腰痛篇」에서 “腰痛……中熱而喘 刺足少陰 刺郄中出血”하러 하였고, 「風論篇」에서 “風氣與陽明入胃 循脈而上至目內 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 則爲熱中而目黃”이라 하였고, 「氣交變大論篇」에서는 歲火太過의 해에 民病의 하나로 中熱을 들고 있다.

이상으로 「靈樞」와 「素問」에서 中熱이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確認할 수 있으나, 診籍에서 言及된 中熱과 같은 것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IV. 結 論

淳于意 診籍에 나타난 疾病을 馬王堆出土 醫書 및 「靈樞」, 「素問」과 比較 檢討하여 아래와 같은 知見을 얻었다.

1. 診籍에서 記述한 腸胃之間에 發生한 疰는 馬王堆, 「靈樞」, 「素問」에 없으며, 乳上에 發生한 疰는 「靈樞 癰疽篇」의 胸에 發生한 井疰와 유사하다.

2. 診籍에서 憂가 氣를 閉塞시키는 病因으로 보는데, 「靈樞」, 「素問」과 같다.

3. 診籍의 風厥과 熱厥은 「靈樞」와 다르며, 「素問」과 같다.

4. 診籍의 湧疰는 「素問」의 冲疰과 類似하며, 氣疰는 馬王堆와 「靈樞」 및 「素問」의 癰疰와 가장 關係가 깊으며, 牡疰는 「素問」의 肺風疰이나, 肺疰으로 여겨지나 더욱 研究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馬王堆 以後에 癰疰이 癰疰으로, 偏疰이 狐疰으로 名稱이 바뀐 것은 醫學理論의 發達과 더불어 새로운 用語로 바뀌고, 새로운 學說이 導入되어, 再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診籍의 風痺은 「靈樞」에 없으며, 「素問」의 痺熱이 風痺과 類似하며, 診籍의 肺消痺은 「靈樞」의 肺消痺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6. 診籍의 迴風은 「靈樞」와 「素問」에 없으며, 「靈樞」의 洞泄과 같다. 診籍의 迴風은 醫學의 發展에 따라, 迴風은 먼저 洞泄로 바뀌고, 다시 洞泄과 迴泄로 分化된 것으로 생각된다.

7. 診籍에서 蟲齒의 治療에 左右의 區別을 하였고, 手陽明脈에 灸를 한 것으로 보아, 그 病은 右側 下齒의 蟲齒임을 알 수 있다. 齒牙를 초기에는 齒脈과 臂陽明脈에 關聯시켰으나,

점차 手陽明脈외에 足陽明脈, 足少陰脈, 足太陽脈도 連繫시켰으며, 「靈樞」는 經脈의 流注路線에, 「素問」은 五行配屬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診籍의 痺症 分類는 五行理論을 爲主로 하여, 「素問」의 痺症 分類와 恰似하며, 馬王堆의 痺症 分類는 經脈理論을 爲主로 하여, 「靈樞」의 痺症 分類와 恰似하다.

9. 診籍의 月事不來에 關한 說明이 基本적으로 「素問」과 같으나, 「素問」에 없는 理論을 言及하고 있다.

## V. 參考文獻

1. 「漢文大系」史記列傳,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中華民國67年.
2. 金賢濟 洪元植編譯, 漢醫學辭典, 서울, 成輔社, 1990年.
3. 南晚星譯, 「史記列傳」, 서울, 乙酉文化社, 1983.
4. 馬持盈註, 「史記今註」,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76年.
5. 山田慶兒, 「新發見中國科學史資料の研究」譯註篇, 論考篇, 京都,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 昭和60年.
6. 楊士孝注, 「二十六史醫家傳記新注」,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86年.
7. 梁運通主編, 黃帝內經類析, 內蒙古, 內蒙古人民出版社, 1986年.
8. 楊維桀編, 黃帝內經譯解, 서울, 成輔社, 1980年.
9. 任應秋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年.
10. 張碧金 王一方編,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年.
11. 周一謀 簫佐桃主篇,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年.
12. 陳居霖, 「中國歷代名醫錄」, 香港, 現代中醫藥學院, 中華民國66年(1977年)
13. 陳舜臣著 이용찬 역, 「중국고적발굴기」, 서울, 대원사, 1988.
14. 洪元植, 「黃帝內經素問解釋」, 서울, 고문사, 1980.
15.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서울, 고문사, 1980.
16.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年.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年.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年.
19. 丸山敏秋, 「黃帝內經과 中國古代醫學」, 東京美術, 東京, 昭和63年.